2023 ACTS NEWS

VOL. 61

Evangelization of Asia and the World

ZOOM IN ACTS

- 아신대학교, 新 UI 선포식과 함께 새 출발 다짐
- 아신대 도서관, '길위의 인문학' 7년 연속 선정
- 이숙경 교수 은퇴 감사예배

신학포럼

- 제14차 신학포럼 개최

AIGS 소식

- 아신대학교 의료선교 현장
- 후원기관 아신대학교 방문

신간소식

- 챗GPT 목사님 안녕하세요
- 성경 한눈에 보기
- 한국 교회 트렌드 2023

ACTS 아신대학교
ACTS UNIVERSITY

content

02 총장 메시지
04 ZOOM in ACTS
10 신학포럼
11 중·고등부 찬양경연대회
12 AIGS 소식
14 신간 소식
16 ACTS 후원 소식
18 English Summary

ACTS NEWS

2023년 여름호 Vol.61

발행일
2023년 8월 28일

발행인
정홍열

발행처
아신대학교 기획처
TEL. 031-770-7803
ADD. 12508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경강로 1276

디자인
(주)이은컴퍼니
TEL. 02-2231-6402

신선한 기사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보내실 분은 이메일로 연락해 주십시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홈페이지 www.acts.ac.kr
이메일 skyair@acts.ac.kr

아신대학교
홈페이지

총장 메시지

President's Message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성장해 나가는 학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덥고 힘들었던 여름을 보내고 건강하게 2학기를 맞이하는 액츠 가족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폭염과 많은 비로 인해 지난 여름방학 동안 학교는 여러 곳 손보고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오래된 엘리베이터도 교체하고 여자기숙사의 지붕과 벽 방수공사와 본관의 누수로 인한 파이프 교체 작업등도 이루어졌고 또 진행될 예정입니다. 형편 되는대로 최선을 다해 학교시설 개선과 보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학교가 이러하듯 우리 자신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스로 고치고 개선하며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들도 살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학우 여러분들도 신앙과 인격에 있어서 지난 방학 동안 많은 성숙과 진보가 있었으리라 기대합니다. 새롭게 맞이하게 되는 2학기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으로 더 즐겁고 유익한 경험들이 기다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내년은 우리학교가 개교 50주년이 되는 해이고 그에 따라 많은 행사들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학기부터 몇몇 개교 50주년 기념 준비 행사들이 미리 착수되었습니다. 학교의 유아이(UI)가 교체되었고 곧이어 50주년 기념 앰블럼도 선정할 것입니다. 내년에 진행할 개교 50주년 행사들의 실질적 준비는 이번 학기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대와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될 많은 행사들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2학기의 시작과 더불어 내년도 24학년도 신입생 모집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학부신입생들을 모집하게 될 수시입시에 액츠가족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학교는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신학대학입니다. 비록 학교가 의지할 소속 교단도 없지만 훌륭한 개교이념과 설립정신이 좋아서 많은 건강한 신앙인들의 사랑과 관심에 힙입어 지금까지 건강하게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먼저 다녔던 선배들의 추천과 소개로 우리학교에 찾아온 학생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학교에 대한 경험과 판단에 따라 다시 추천받게 되는 알짜배기 학교인 것이지요. 그럼 점에서 우리학교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깊은 튼튼한 학교입니다.

지난 학기에 코로나를 벗어나 정상화 된 캠퍼스에서 저는 여러 학생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만족해 하면서 행복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대해 기대했던 바보다 더 크게 만족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학생들이 만족하고 행복해 한다면 그보다 더 큰 보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 결코 잘못되지 않았다는 오히려 기대를 넘는 만족과 즐거움이 있는 학교생활이 되도록 학교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성장해 나가는 학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신대 제11대 총장 **정 홍 열**

ZOOM IN ACTS

사람을 세우고 세계를 품는 대학,
아신대학교

ACTS
ACTS UNIVERSITY

아신대학교, 新 UI 선포식과 함께 새 출발 다짐

아신대학교는 개교 50주년을 맞이하여 학교의 새UI(University Identity · 대학이미지 통합시스템) 선포식을 개최하고 새로운 도약을 알렸다. 아신대는 지난 5월 2일 오전 11시 30분 강당에서 정홍열 총장과 학교법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이장호 이사장을 비롯한 이재훈 이사(온누리교회 담임), 교수, 직원, 학부생, 졸업생등 구성원 약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UI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홍열 아신대학교 총장은 "아신대 새 UI는 말씀을 상징하는 성경을 모티프로 세상을 향한 아신대의 섬김과 미래를 향한 비상 그리고 선교를 의미한다. 또한 아신대는 ACTS라는 약칭으로 더 잘 알려져있는데 ACTS 이니셜을 단단한 기둥으로 형상화 하여 대학 교육의 기반을 쌓는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고 전했다.

성경(말씀), 섬김, 비상, 기둥

아신대는 지난 2021년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에서 현재의 '아신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한 바 있다. 다가오는 2024년 개교 50주년, 희년을 맞는 아신대학교는 교회연합으로 세워져 운영되는 국제적인 복음주의 신학대학교이며 신학연구와 선교교육을 통해 세계복음화의 사역자를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신대학교, 제49주년 개교기념 감사예배 거행

지난 5월 2일 오전 11시 30분 교내 강당에서 <제49주년 개교기념 감사예배>를 거행했다.

아신대 정홍열 총장과 학교법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이장호 이사장을 비롯한 이재훈 이사, 학부 총동문회장, 신학대학원 동문회장, 교수, 직원, 학부생, 졸업생등 구성원 약400명이 함께했다.

먼저 개교 49주년을 축하하며 약 70여명의 아신대학교 국제교육원 외국인 학생들이 약 20여개국의 각국 언어로 나누어서 부르는 특별 찬양이 울려 퍼졌다.

이어서 아신대학교 학교법인 이사이자 온누리교회 담임목사인 이재훈 이사가 '부르심'(창11:27~12:3)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재훈 이사님은 "개교기념일은 학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을 다시 되새기는 귀한 날이며, 내가 여기 부르심을 받은 것을 확인하는 날이라고 생각됩니다.

개교 4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부르심을 받은 것을 다시 확인하는 귀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라며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다. 이와 함께 아신대학교는 대학의 새로운 심볼과 UI(University Identity)를 선포하였고 구성원들의 뜨거운 호응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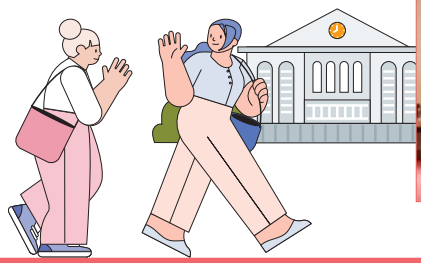
마지막으로학부 총동문회와 신학대학원 동문회에서는 개교기념일을 축하하며 학교 발전기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3학년도 1학기 개강예배

지난 3월 2일 본교 강당에서 2023학년도 1학기 개강예배가 진행됐다. 교학처장 조휘교수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신성욱 교수님께서는 기도로 예배를 인도해 주셨다. 정홍열 총장님께서는 “우리 학교는..” 이라는 제목으로 ACTS의 역사와 설립배경에 대해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다.

이어진 순서로, 지난학기 성적우수자 장학증서 수여식이 진행됐다. 신학과 임기쁜, 선교영어학과 이우영, 선교중국어학과 정승헌, 선교문화복지학과 이찬규, 기독교교육상담학과 이수현, 국제개발협력전공 김민정, 기독교교육(ACSI)전공 최승혁, 청소년상담지도 전공 오진택 학생이 학과·전공 수석으로 장학증서를 수여받았다.

이번, 2023학년도 1학기 개강예배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비전이 가득한 은혜로운 예배 시간이었다.



아신대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7년 연속 선정

▶ 2022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탐방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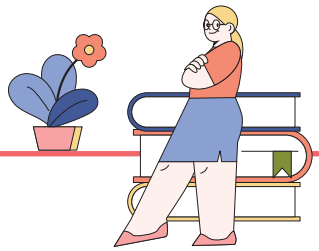
아신대학교 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2023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7년 연속 선정됐다.

2013년 처음 시행된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은 지역도서관을 거점으로 지역주민에게 인문학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과 역사를 성찰하고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서 아신대 도서관은 참여형, 사회확산형 2가지 유형의 프로그램를 개설한다. 아신대 관계자는 “이번 인문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주배경여성과 자립준비청년들이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자기인식을 통해 건강히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점차 확대되는 개인주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상생의 시대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나와 우리를 위로하는 그림책’은 정서지능진단을 통해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림책을 읽으며 7분 글쓰기를, ‘나와 마주하는 글로 쓰는 사진’은 이주배경여성과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포토보이스 활동을 통해 미래를 보다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강사는 아신대 박송아 교수, unlook 최지인, 양주안 작가, <꽤 괜찮은 해피엔딩>저자 이지선 작가 등이 참여한다. 아신대 ‘길 위의 인문학’은 양평군 내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사업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이다.



코스메틱더엘 대표 이미나 교수, 아신대학교 발전기금 기탁

본교는 학교 동문이자 코스메틱더엘, 스파더엘 대표인 이미나 교수로부터 교육, 연구 및 학생지원 등을 위한 발전기금 5천만 원을 전달받고 지난 5월 2일 진행된 2023학년도 1학기 개강예배에서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 교수는 지난 2022년 초에도 수차례 발전기금을 전달한 바 있어 기탁한 발전기금 총액은 1억 원이 넘는다.

방송인이었던 이 교수는 연예인들이 자주 찾는 곳으로 유명한 스파더엘의 대표로 시작하여 현재는 건강·미용용품에서도 "이미나의 블레싱"이라는 브랜드로 유명해져 사업을 성장시키고 있다. 또한 방송인, 사업인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교인 아신대에서 리더쉽과 대인관계 관련 강의를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오륜교회가 1만 5500여 개 교회와 함께하는 다니엘기도회에 강사로 초청받아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전세계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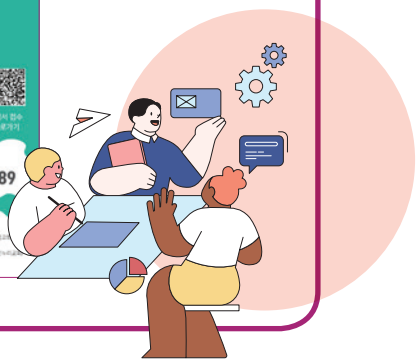
아신대 정홍열 총장은 이미나 교수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전달받은 발전기금을 통해 아신대 학생들이 선배인 이미나 교수와 같이 삶과 신앙이 모두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해 가르치겠다고 전했다.

아신대학교, 아신(ACTS) 온라인 교사대학 운영

교육연구소에서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이용해 교회학교 교사 교육을 위한 '아신(ACTS) 온라인 교사대학'을 운영한다. 수강료는 월 구독료 5,000원으로 저렴한 가격에 전 과정을 수강할 수 있으며 모든 과정을 수료할 시 총장 명의의 수료증도 제공한다.

강의자는 각 전공 분야의 아신대 교수들뿐만 아니라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를 비롯해 국내외 저명한 목사와 교수들이 참여하여 이론과 실제가 조화를 이루면서도 깊이 있는 교회학교 교사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100%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국내뿐 아니라 해외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수강이 가능하다.

◎ 월 구독료 5,000원
◎ 상담 문의: 031-770-7889, edu@acts.ac.kr
◎ 신청서 작성: https://acts.ac.kr/edu



2023학년도 신임교원 임명

❶ 유지윤 교수

❷ 김은정 교수

지난 3월2일 개강예배에서 신임교원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날 수여 받은 교원은 교육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유지윤 교수님과 신학부 김은정 교수님이다.

유지윤 교수는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에서 미디어 연구로 박사학위(Ph.D.)를 취득하였다. 연세대학교에서 객원교수로 강의를 시작하여 전북대학교, 한동대학교, 포스텍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김은정 교수는 Wycliffe College와 University of St. Michael's College, University of Toronto에서 구약학(창세기전공)으로 Th.M.과 Ph.D.를 취득하였다. 구약신학, 창세기 설교, 구약과 신약의 관계성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다수의 신학교에서 구약 과목을 강의했다.

정홍열 총장님은 "ACTS 가족이 되신걸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2023학년도 봄학기 신앙수련회

2023학년도 봄학기 신앙수련회가 “회복으로의 초대”라는 주제로 지난 3월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됐다.

이번 신앙수련회 예배는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 설교로 진행됐다. 총 5번의 예배시간으로 “소명의 회복”,“은사의 회복”,“기도의 회복”,“은혜의 회복”,“제자의 회복” 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다.

또한, 전학대 및 자치기구소개, 동아리연합회 공연, 가정폭력 예방교육, 각 학부 모임, 지도교수와 만남의 시간 등 귀한 시간들로 채워졌다.

메디힐 권오섭 회장, 아신대학교 발전기금 1억 원 전달

본교는 글로벌 마스크팩 브랜드 메디힐로 유명한 엘앤피코스메틱(주) 권오섭 회장으로부터 교육, 연구 및 학생지원 등을 위한 발전기금 1억 원을 전달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권 회장은 2020년부터 ‘메디힐장학재단’을 통해 꾸준히 아신대를 후원하고 있으며 권 회장이 기탁한 발전기금은 지금까지 총 4억 원에 달한다.

마스크팩 브랜드평판 1위 메디힐은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마스크팩과 함께 다양한 스킨케어 제품으로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기준 전 세계 44개국에 25억장 이상이 판매된 마스크팩은 최근 일본에서도 누적 판매량 300만 장를 돌파하는 등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또한 골프, 농구 등 여러 프로 스포츠 경기를 지원하며 선수들과 함께 사회공헌에도 힘쓰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도 힘을 다하고 있다.

아신대 정홍열 총장은 엘앤피코스메틱(주) 권오섭 회장과 임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발전기금을 통해 아신대 학생들이 신앙과 인격이라는 내적인 아름다움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UNN

전당 피플·컬쳐 대담 포토·영상 프리미엄

홈 › 뉴스 › 대학뉴스

권오섭 메디힐 회장, 아신대 발전기금 1억 원 전달

이정환 기자 | 입력 2023.02.20 11:55 | 댓글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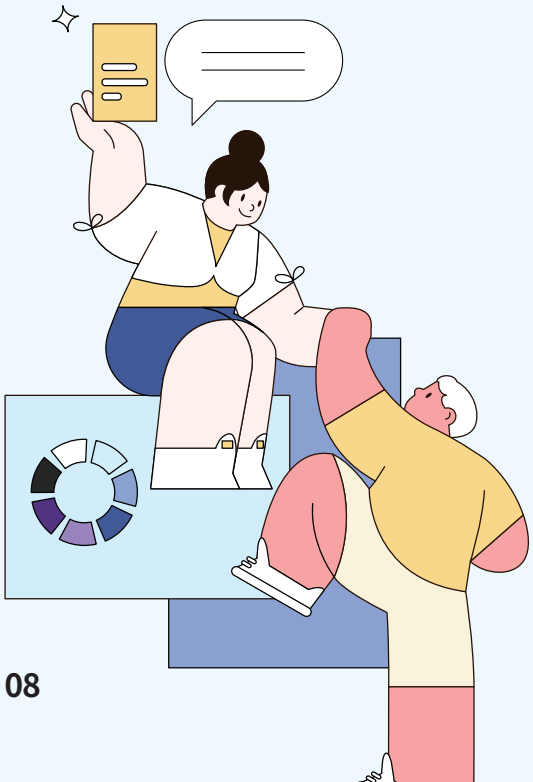
가 가

새에덴교회, 아신대학교 채플실 LED 스크린 설치 후원금 기탁

새에덴교회 소강석 담임목사가 지난 5월 16일 아신대 화요예배에서 채플실 LED 스크린 설치 후원금을 전달하였다.

아신대는 화요예배에 소강석 목사를 설교자로 초청하였고, 소강석 목사는 “얼마나 감격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학생들에게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을 전하였다. 설교 후에는 채플실 LED 스크린 설치 후원금 기탁식을 진행하였으며 아신대 학생들과 교수, 직원들은 큰 박수와 환호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아신대 정홍열 총장은 “새에덴교회가 후원하신 LED 스크린을 통해 채플실에서 진행되는 예배와 행사가 더욱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새에덴교회 소강석 담임목사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숙경 교수 은퇴 감사예배

지난 5월 30일 본교 화요 채플 시간에 이숙경 교수 은퇴예배를 진행했다. 순서에는 이숙경 교수가 “부르심의 목적” 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다. 기독교교육상담학과 안성미 학생이 송사를 전했다. 또한, 기독교교육상담학과와 교육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학생들의 특별영상과 특송이 진행됐다.

곧이어, 퇴임사 및 감사패 전달식을 가졌다. 이숙경 교수는 본교에 1993년부터 본교에서 재직하였으며, 본교 대학원의 기독교교육학과, 학부 기독교교육학과 그리고 교육대학원을 설립하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였다. 현대사회에서의 기독교교육의 정체성, 기독교교육과 문화의 문제 등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며 가르쳤다.

또한, 학생처장, 생활관장, 교육대학원 교학처장, 교육연구소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으로 섬겼다.

90학번 신학과·아세아학과 동문 장학금 전달식

지난 5월9일 학부 화요채플시간에 90학번 장학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90학번 동문들은 매년 학부학생들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부 학생들의 등록금 지원을 도왔다. 설교말씀에는 90학번 권준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다.

한편, 2023학년도 90학번 장학금 수혜자는 신학부 2학년 하유빈, 신학부 3학년 윤대기, 상담복지학부 1학년 정여민 학생이 수혜를 받았다.

아신대학교(ACTS), 신학대 최초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 제정 및 발표

지난 6월 14일, 신학대 중 처음으로 "ACTS 교수·학습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교육혁신센터의 주관으로 이루어진 이 가이드라인은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교육 환경에서 긍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활용 정신 및 방안을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모든 구성원들이 인지하도록 돕는 것에 목적을 둔다.

아신대학교의 인재상("신앙과 지성으로 세계를 섬기는 기독교지도자 양성") 및 다섯 가지 핵심 역량(신앙과 인성, 전공전문성, 글로벌 민감성과 탁월성, 창의·융합 역량, 공감과 소통의 리더십)을 기반으로 고안된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각각 △정직과 책임성(Honesty&Responsibility) △지성(Intelligence) △다양성(Diversity) △창의성(Creativity) △공공성(Publicity)라는 핵심 키워드로 적용 및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에서는 학습자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기술적 활용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고 권장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면서도, 학술 윤리적 활용과 사용에 대한 책임을 안내하고 있다. 즉 윤리적 문제가 부정확한 정보 생산 등 생성형 AI를 활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들에 대해 인지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사용자에 대한 책임과 유의를 강조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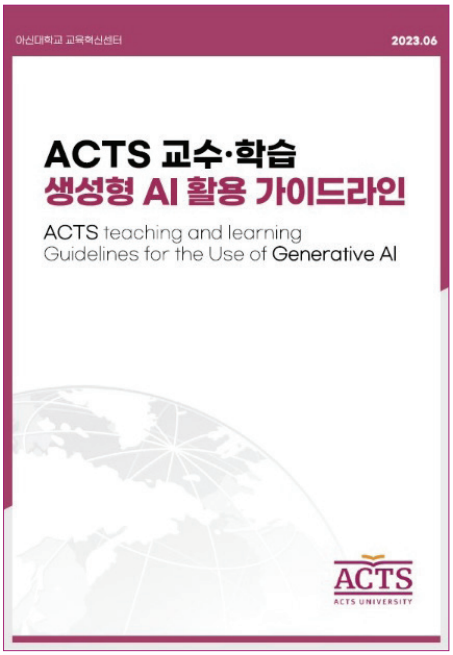
또한 교수·학습 제시 방안으로 교수자에게는 △강의 시작에 앞서 생성형 AI 활용에 대해 학생들과 논의하고 합의된 내용을 학생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유하여야 한다는 것과 △'현장 프로젝트', '구두발표', '대면 집필', '경험적 데이터 수집(인터뷰, 설문조사)' 등 다양한 평가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 확립에 힘써야 한다 등의 권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학습자 권고 사항에 있어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나타난 결과와 모든 정보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며, 비판적 질문을 통해 제공된 정보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자신에게 유용한 정보를 구분하여 선택하여야 한다는 것과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유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학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교수자나 전공자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여 새로운 교육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등을 말한다.

이를 발표하는 아신대학교 학교 홈페이지(www.acts.ac.kr)의 공지에서는 아신대 구성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소양해야 할 자세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는 이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고 인지하여 생성형 AI의 바른 활용 문화 확산에 동참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추가로 아신대학교 교육혁신센터에서는 현재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영문판을 검토 중이며, 이른 시일 내 배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전화 : 031-770-7787(교육혁신센터)
홈페이지 : www.acts.ac.kr



신학포럼
THEOLOGICAL FORUM

아신대학교, 제14차 ACTS 신학포럼 개최

아신대학교 부설 ACTS신학연구소는 4월 17일(월) 오후 12시부터 2시 30분까지 학교 강당에서 제14차 ACTS신학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주제는 'ACTS 신학과 생태환경'으로 복음주의 신학 관점 아래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자연 피조 세계에 대한 교회의 역할과 책임을 반성적으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 발제자인 이한영 박사(아신대 구약학)는 '창조 내러티브(창 1:1-2:3)의 신학적 의미'를 발표하였다. 이 박사는 창조 내러티브의 구문과 장르 분석에 기초하여 창조의 중요한 가치로서 '안식'을 제안하였고 이에 따른 인간의 특권과 책임을 하나님과 인간 상호 및 생태 피조물과의 관계성 안에서 도출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의 언약적 안식 누림과 회복이 진정한 복임을 소개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창준 박사(기초과학연구원 생명과학연구소장)는 '과학자의 눈으로 본 창세기'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창조기사의 내용을 순서적으로 다루면서 과학자들 안에서 상식화 되어 있는 진화론 못지않게 창조론 역시 '또 하나의 과학적 가설'이 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과학적'이란 개념 안에도 '신앙적/전제적 가치'를 배제할 수 없음을 밝힘으로써 과학의 한계를 피력하였다. 한편 생태환경의 진정한 돌봄은 진화론에 따른 적자생존의 가치가 아닌 창조론에 나타난 하나님 사랑의 가치로 세워져야 함을 새롭게 상기 시켰다.

주제 발표 직후 허주 교수(소장)의 사회로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안경승 교수(상담학), 조휘 교수(구약학), 김한성 교수(선교학)의 상호 피드백을 통해 각 전공 분야의 적용 및 통합적 이해 속에 포럼 주제가 전개되었다.

국내외적으로 전쟁, 지진, 산불 등으로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 개인과 교회의 책무를 시의적절 하게 돌아보는 담론의 시간이었다. 복음주의 신학과 신앙이 하나님과 인간에 초점을 갖되 우리의 신학/신앙적 실천 영역은 자연과 피조세계에까지 확장되어야 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제15차 신학포럼은 10월 양평 아신대학교 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아신대학교 중·고등부 찬양 경연대회

찬양으로 위로받고
회복되는 시간

ACTS UNIVERSITY PRAISE CONTEST

대상

전국 중·고등학생 솔로, 중창, 그룹
(ccm, 찬송가, 복음성가)

접수기간

2023년 9월 4일(월) ~ 17일(일)

접수방법

구글 설문지를 통하여 접수하며,
1차 예선 심사곡은 4분 이내의 곡을 선정하여
동영상 촬영 후 접수기간내 이메일 접수
(skyair@acts.ac.kr)

일시

- 1차 예선 : 영상 심사 9월 22일(금)
- 1차 발표 : 9월 26일(화)
- 본선 : 11월 2일 (목) 14:00~ 16:00

장소 및 주최

아신대학교

상금

- 대상 1팀 (상금 100만원)
- 최우수상 1팀 (상금 70만원)
- 우수상 2팀 (상금 30만원)
- 장려상 2팀 (상금 20만원)

문의

- Tel : 031-770-7803

AIGS NEWS

2023 아신대학교 AIGS 상반기 키워드 뉴스

아신대학교 의료선교 현장

서울메디투어 건강증진센터 동성희 원장은 내·외국인 학생을 위한 진료를 위해 매월 방문하여 학생들을 위한 진료를 시작하였다. 외국인 학생의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심각하게 아프지 않은 이상 병원문을 잘 두드리지 못하고 있다. 일부 학생의 사정을 들어보니 혹시나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 큰 비용으로 이어질까 염려되어 병원 방문이 꺼려진다고 한다. 이들의 사정을 들은 동성희 원장은 병원 진료를 꼭 받아야 하는 학생과, 일반 감기처럼 취급해야 하는 것을 구분하여 학생들에게 설명하였다.

아울러 수업 시간에 쫓겨 병원 방문할 시기를 놓쳤던 많은 한국인 학생들도 진료를 받게 되었다.

후원기관 아신대학교 방문

1) 온누리교회 마리아행전&무릎선교기도팀 아신대학교 방문

일시 : 2023년 4월 13일 (목)

온누리교회 마리아행전&무릎선교기도팀원 약 120명이 아신대학교를 방문하였다. 온누리교회 마리아행전&무릎선교기도팀은 아신대학교와, 자국 선교의 비전을 갖고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며, 서로 위로와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온누리교회 성도는 외국인 학생들이 본인들의 자녀 같아 그들을 위해 울며, 기도하였고 외국인 학생들은 고향에 계신 부모님 생각과 엄마 같이 품어 주시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의 눈물이 흘러넘쳤다.

2) 한국여성복음봉사단(단장, 박문희) 아신대학교 방문

일시 : 2023년 5월 22일 (월)

한국여성복음봉사단과 아신대학교의 인연은 약 47년 전으로 거슬러 간다. 1976년 4월 19일 아신대학교(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에 한국여성복음봉사단(1대 이사장, 故신의경)이 초대되어 각국 학생과 예배를 드리면서 인연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1974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열방을 향한 복음을 목적으로 수십명의 아신대학교 외국인 학생을 후원하여 선교사로 재 파송하는 사역에 동역하고 있다. 한국여성복음봉사단은 1974년 故신의경 권사로(이사장)부터 시작되어, 현재 그의 따님인 박문희 권사(이사장, 93세)가 맡고 있다. 한국여성복음봉사단을 섬기는 단원의 평균연령은 70대 이며, 엄마와 딸이 대를 이어 복음봉사단을 섬기는 분들이 있다. 믿음의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어 그 자녀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봉사하는 모습을 보며 죽기까지 믿음을 실천하는 그들의 모습은 아름답고 참 귀하다.

2023년 5월 22일(금) 한국여성복음봉사단 월례회를 아신대에서 예배하였으며, 한국여성복음봉사단의 도움을 받고 2023년 2월에 졸업한 Krupavaram Lella 학생의 간증과 감사 인사가 있었다. 그리고 현재 후원받고 있는 6명의 외국인 학생이 함께 참여하여 고마운 마음을 전하였다.

2023. 2월에 졸업한
Krupavaram Lella의 간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아신대 재학 중에 큰 축복을 누렸는데 그중에 여러분을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후원과 기도로 훌륭한 교수님들을 만나서 공부하고 학업을 올해 2월에 학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후원해 주신 덕분에 박사학위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인도 기독교 남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2대째 예수님을 믿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헌신하는 사역자의 꿈을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말 못 하는 장애인이 될 뻔하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목소리에 문제가 생겨서 말을 못 하는 상황에 생겼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여러분 앞에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 스스로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비록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저 스스로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원하는 길로 가고 싶었고, 사역자의 길로 들어서는 것은 부분적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2007년에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거의 죽기 직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1장 21절 통해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소명을 받을 때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을 생각하며, 제가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09년부터 신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2015년도에 한국 오기 전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 Aldo Sheeba Lella로 박사학위 논문 중에 있습니다. 저하고 제 아내는 인도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 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와 더불어서 인도에 가서 선교단체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센터를 건립하고 거기에서 제자들을 길러내서 하나님 나라 사역자를 양성하고 싶습니다. 제가 설립한 선교회를 통해 지역 목회자와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성하며 선교를 향해 격려하는 성경학교와 선교 훈련의 역할을 하는 선교센터의 기능을 하고자 합니다. 제자훈련, 전도, 예배가 이 사역의 일부입니다. 또한 우리는 또한 기독교 청년들이 영적 여정에서 기독교 청소년을 단합하고 준비시키고, 사회에서 좋은 본보기가 되기 위해 Cross Bearers 청소년 그룹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회 활동과 선교 행사를 통해 비기독교 청소년들에게 다가가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인도 기독교는 건전한 성경적 가르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통해 문학 사역에도 임할 것입니다. 현재 저는 영어, 텔루구어, 칸나다어로 출판하기 위한 다양한 신학적이고 헌신적인 책을 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서선교를 통해 독자들이 하나님, 예수님, 교회와 그 사명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러나 쉽게 이뤄지지는 않는 것이고, 많은 도전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길을 밝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저를 훈련해 주신 거로 생각합니다. 제가 곤고하고 필요한 순간에 도움을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아신대학교에 와서 외국인학생과 더불어 공부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신간소식

NEW BOOK NEWS

좋은 책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 달의 신간도서를
소개합니다.

챗GPT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자 : 챗GPT, 김규섭, 김학봉, 이수인, 유지윤, 전희준

"챗GPT의 시대, 개와 늑대의 시간"

최근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챗GPT 광풍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는 '개와 늑대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 이 표현은 프랑스의 양치기들이 사용하던 관용어다. 사방이 어둑한 해질녘, 곧 언덕 너머로 보이는 실루엣이 내가 기르는 개인지, 나를 공격하러 오는 늑대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시간을 뜻한다. 이 시간은 낮이라고 하기에는 어두워서 주변을 분간하기 어렵고, 밤이라고 하기에는 어렴풋하게 형체가 보이는 불확실성의 시간이다.

인공지능을 이세돌 9단과 바둑을 두던 알파고 정도로 여기며 무심히 지내던 우리 눈앞에 무언가 나타났다. 저 언덕 너머에 있는 실루엣. 그것은 과연 우리와 공존할 수 있는 개일까? 아니면 우리의 자리를 빼앗거나 결국 우리를 장악할 늑대일까? 챗GPT는 아직까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시커먼 실루엣일 뿐이다. 이 책은 AI 시대를 살아갈 그리스도인을 위한 필독서다.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

저자 : 이수인

인포데믹의 미래, 미디어가 없는 삶은 없다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창조적'으로 소통하는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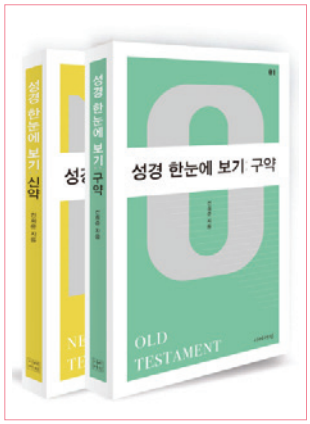
유튜브,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페이스북……. 이러한 미디어를 하나라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드물 것이다. '미디어' 그 자체가 되어 버린 오늘날, '미디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도 없는 지금. 미디어를 설명하고 활용법을 소개하는 책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쉬웠던 것은, '그리스도인'을 위한 미디어 길라잡이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 사이 여전히 한국교회는 미디어를 흑백의 논리로만 바라보고만 있지 않았을까?

한국교회는 미디어는 나쁜 것, 피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해 왔다. 그러는 사이, 시대에 뒤처져 세상과 복음의 통로를 막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모든 세상은 미디어와 함께 돌아가고 있다. 그리스도인 또한 마찬가지다. 눈과 귀를 막아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린 미디어. 이제는 용기를 내어 복음으로 미디어를 지배해야 한다!

이 책은 가짜 뉴스와 잘못된 정보가 파도처럼 범람하는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중심을 잡고 진실을 분별하며 복음의 메신저가 될 수 있을지 안내해 준다. 또한, 미디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알려 주고 있다.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바른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미디어가 되기를 바란다면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라. 세상을 이기는 힘, 바로 복음과 미디어의 결합에서 나온다.

성경 한눈에 보기

저자 : 전희준



『성경 한눈에 보기: 구약』과 『성경 한눈에 보기: 신약』은 각각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을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하는 성경 개론서이다. 성경 각 권에서 핵심 구절들을 뽑아서 그 구절들을 중심으로 전체 맥락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기 쉽거나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을 친절하고 쉬운 언어로 설명한다.

성경 통독을 하려는 분들, 쉬운 성경 개론서를 찾는 분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연결해서 이해하고 싶은 분들,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하는 교사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성경의 전체 흐름을 파악할 뿐 아니라 성경 각 권에 담긴 신학적 통찰을 이해하고 싶은 그리스도인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준다.

초기 유대교

저자 : 존 J. 콜린스, 대니얼 C. 할로우 저 / 김규섭 외 역

"여러 세대에 걸쳐 셀 수 없이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비참함에 빠져 조상의 땅을 앙망하며 살았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터무니없는 상상이다."
-181쪽

이 책은 각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자들이,헬레니즘과 초기 로마 시대의 유대교에 대해, 15개의 주제로 정리한 책이다. (성서학에 있어서) 유대교 연구의 최근 동향으로부터, 사료들을 중심으로 서술한 유대교의 역사, 이스라엘 본토와 디아스포라의 유대교의 모습들, 유대교의 경전(성경) 및 외경/위경, 사해문서, 유대교의 성경 해석 방식, 필론과 요세푸스, 고고학, 그리스인/로마인과 유대인 사이의 관계, 초기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 사이의 관계, 초기 유대교와 랍비 유대교 사이의 관계 등을 개괄적으로 다룬다. 독자들은 이 책에서 "초기 유대교"에 관한 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가장 권위적인 묘사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한국 교회 트렌드 2023

(쫓아가면 도망가는 세대, MZ)

저자 : 전병철 외

2년이 넘는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한국 교회는 매우 어려웠고 암울했다. 많은 모임이 사라지고 대면예배가 비대면으로 전환되었지만, 다시 회복할 때를 기다려 왔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 교회는 회복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맞게 한국 교회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제시하는 최초의 트렌드 분석서인 『한국 교회 트렌드 2023』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간되었다. 이 책은 한국 교회가 주목해야 할 10가지 트렌드 키워드와 미국 기독교의 흐름을 소개하며 2023년 한국 교회를 예측하고 전망한다. 전문 리서치 데이터를 토대로 한국 교회의 현상을 분석했기 때문에 객관적인 목회전략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을 준다. 통계 관련한 국내 유일의 기독교 비영리 연구기관인 목회데이터연구소와 미션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공동 기획하여 출간한 이 책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목회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교회가 나아가야 할 미래를 고민하는 목회자와 직분자 그리고 교회의 리더들에게 귀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ACTS신학저널

ACTS신학저널 55집

기고자
김용준, 이은선, 함영주,
김한성, 하태선

ACTS신학저널 56집

기고자
이신열, 전희준, 안점식, 오영철,
최성훈, 이수인

ACTS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이름

(2023년 1월 ~ 6월)

후원계좌 ACTS 발전기금 | 국민은행 220-01-0329-818 (예금주 : 아신대학교)

생활관 건축 후원

강호안, 고미선, 김경진, 김명순, 김재진, 김정호A, 김진미, 김진화, 김창환, 김현아, 김화영, 노의수, 박영란, 박영진, 박정임, 소윤정, 손하영, 송경아, 송안현, 안태일, 이광길, 이명기, 이상민, 이한교회, 이혜원, 정지은, 조상식, 조지현, 조현종, 채수호, 한정연, 허은정, 홍미란, 황호동

각국 선교연구원/개척 후원

갈릴리교회, 강성곤, 김선자, 김성옥, 김신아, 김응상, 김정호B, 김종원, 김진욱, 노지희, 대흥교회, 덕수교회(경기), 동춘교회, 목동중앙교회, 박영숙(순복음삼마교회), 박원, 박정순, 박정진, 상도중앙교회, 상화한의원, 서부교회, 선교교회, 성경적성경연구원, 세종중부교회, 소윤정, 소재현(김경희), 송전교회, 수영로교회, 수표교교회, 순복음대구교회, 순복음우리네교회, 아펜우드선교회, 안디옥열방교회, 영락교회제2여전도회, 원동오, 유기홍, 유라시아선교연구원, 윤정한, 은좌교회, 은혜교회, 이점화, 이해영, 임마누엘교회, 임수영(김홍석), 장예림, 장완익교수후원회, 전문정, 전주연(강선민), 정영신, 조병휘, 천안반석교회, 충신교회, 한강중앙교회, 형치과병원, 홍상락

ACTS 발전기금 후원

(사)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 (재)메디힐장학재단, (재)서울의과학연구소(SCL헬스케어그룹), (주)에스피씨테크놀로지, (주)코스메틱더엘, M.Div.동문회, 고정환, 고지은, 권오윤(지윤, 지헌), 금동철,김규섭, 김다니엘A, 김덕영, 김동일, 김상현, 김성진A, 김영삼, 김용환(김경민), 김은기, 김준구, 김준수, 김진화, 김창환, 김표현, 김한성, 나직균, 남서울교회, 남양주충신교회, 노재웅, 대구칠곡교회, 드림교회, 들꽃푸른샤론교회, 류승희, 모새골공동체교회, 문막운수(주), 미래를사는교회, 박명기, 박영진, 박윤정, 박응규, 베이직교회, 새에덴교회, 성은교회, 세대로교회, 소망교회, 손신, 송경렬, 송도가나안교회, 신성욱, 안경승, 안점식, 양희천, 여의도순복음교회, 열린교회, 염천교회, 영세교회, 온누리교회, 우심화, 원영주(이현숙), 위현숙, 육상근, 이광길, 이명기, 이수인, 이숙경, 이순규, 이정남A, 이정순B, 이한교회, 이한영, 일반대학원영성신학과, 임마누엘교회, 장옥란, 장정애, 전병철, 전수진, 정성국, 정영일, 정임행, 정지은, 정홍열, 조암제일교회, 조현종, 조휘, 주안장로교회, 채광석, 채하경, 최원준, 최현식, 평생교육원졸업생일동, 하남교회, 하정길, 학부총동문회, 한국여성복음봉사단, 한상화, 함미숙, 허주, 허호성, 홍지희

ACTS NEWS OF
SPONSORSHIP

외국인학생 장학 후원

(사)국제민간교류협의회, (재)혜송원, (주)예람, (주)태동씨앤에스, BIK(Bangkok Institute of Theology), Boston Nehemiah Institute(BNI), CTSS선교회, IM선교회, KESA동문회, RB,MB(Read Bible, Mission Bridge), 고광석, 고효자, 과천교회, 광명교회, 구미상모교회, 글로벌미션교회, 기독교세계관학교, 김명순, 김명신, 김태연, 김형준, 김혜경, 김홍재, 남병진, 남원주은혜교회, 다산은혜교회, 대성교회, 동부광성교회, 루디아선교회, 말씀장로교회, 명업교회, 문미옥, 문호교회, 방이교회, 분당중문교회, 비전교회, 사회복지법인 여수애양병원, 새생명네팔선교교회, 서광교회, 서부교회, 서성태, 서울네이션즈교회, 서울영동교회, 성지교회, 손미애, 수영로교회, 신선주,신성일, 신언교회, 신은정, 안산온누리M센타, 안상호, 에스겔선교회, 연희교회, 열방공동체교회, 염천교회, 영락교회 소망장학회, 영세교회, 예담교회, 예수기념교회, 오산제일교회, 온누리교회, 온누리교회 글로리3순, 우혜현, 원주제일장로교회, 유재원, 유정애, 윤광희, 윤정선교회, 은천교회, 은평교회, 이경원, 이유용, 이철헌, 이한영, 이효숙, 익명후원자, 단법인비오스국제장학재단, 전주현암교회, 정우철, 조우띠교회, 조휘, 주만교회, ㈜생능, 창신교회, 평광교회, 하나선교회, 하늘역교회,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 한국여성복음봉사단, 한국제자훈련원채플, 한진혁

ACTS 10만명 기도·후원 운동

강갑구, 강성경, 고지은, 김기천, 김동일, 김동현, 김병준, 김용운, 김용환(김경민), 김정미B, 김종일B, 김중숙, 김혜미A, 노의수, 맹기원, 박동원, 박명기, 박영숙, 박홍구, 손신, 손영복, 손하영, 송안현, 신영광, 심재학, 안경승, 양예진, 예수생명교회, 오종미, 원성아(뇌과학센타), 위현숙, 유서원, 유용석, 육상근, 윤국일, 이광직, 이문노, 이우형, 이정남A, 이정순A, 인유진, 정미현, 정영일, 정홍열, 제자교회, 조형우, 조휘, 채광석, 채봉준, 천재욱, 천지혁, 최권능, 표영선, 허주, 홍성장, 황순희

대학/대학원 장학 후원

(사)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 (재)본월드미션, (재)연당장학회, (주)우보인터내셔날, (주)코움, ACTS상담대학원총동문회, M.Div.원우회, 김경은, 김동욱, 김미리, 김상덕, 김성미, 김윤자, 높은뜻광성교회, 더사랑교회(박노철목사), 사단법인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사랑의빛장학회, 사랑한의원(박수원), 상담대학원원우회, 상심리교회(상심교회), 신앙수련회헌금, 안해근, 양희천, 열린교회, 온누리교회, 윤만석, 이동훈, 이사야(신학과02학번), 이삭물류(주), 이소윤, 전난영, 정지웅, 조경진, 평화교회, 학부90학번아세아학과·신학과졸업생일동, 허대순(안예지)

신학연구소

임마누엘교회, 천안아산주님의교회, 청솔환경

ENGLISH SUMMARY

ACTS(Asin University) Medical Missionary Field

Dong Seong-hee, director of the Seoul Medi Tour Health Promotion Center, visited every month to start treatment for domestic and foreign students. In the case of foreign students, even if they have health insurance, they cannot knock on the hospital door well unless they are seriously sick.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of some students, they are reluctant to visit the hospital because they are worried that the expenses they have to pay will lead to high costs. After hearing their situation, Director Dong Seong-hee explained to the students separately that they must receive hospital treatment and that they should be treated like a common cold. In addition, many Korean students who were chased by class and missed the time to visit the hospital were also treated.

Sponsor Group visits ACTS(Asin University)

1) Onnuri Church Maria's Acts & Knees Mission Prayer Team Visits ACTS(Asin University)

* **Date :** Thursday, April 13, 2023

About 120 members of the Onnuri Church's Maria Action & Knee Mission Prayer Team visited ACTS(Asin University). The Onnuri Church's Maria Action & Knee Mission Prayer Team prayed for ACTS(Asin University) and foreign students studying with the vision of their own mission, and had time to console and encourage each other. On this day, the believers of Onnuri Church cried and prayed for foreign students because they were like their children. Foreign students were filled with tears of emotion in their thoughts of their parents in their hometown and their warm hearts that they embraced like their mothers.

* Sitting face to face and focusing on each other's stories
* Hugging each other with a mother's heart, a daughter's heart, and a son's heart
* Blessing and encouraging foreign students
* Consolation and blessing for Chung Hong-yeol, President of Asin University, Lee Han-young, Vice President of Asin University, and Professor Lee Myung-seok

2) The Korean Women's Gospel Volunteer Group (Director, Park Moon-hee) visited Asin University

* **Date :** Monday, May 22, 2023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orean Women's Gospel Volunteer Group and ACTS(Asin University) dates back about 47 years. On April 19, 1976, the relationship began when the Korean Women's Gospel Volunteer Group (1st Chairman, the late Shin Eui-kyung) was invited to Asin University (formerly Asia United Theological University) and worshiped with students from around the world. And from 1974 to 2023, group has sponsored dozens of foreign students at Asin University for the purpose of evangelizing the country and has been working with them as missionaries. The Korean Women's Gospel Volunteer Group started with the late Shin Eui-kyung in 1974 and is currently headed by his daughter, deaconess Park Moon-hee (Chairman, 93 years old).

On May 22, 2023 (Fri), the monthly meeting of the Korean Women's Gospel Volunteer Group was held as a service at Asin University. On this day, there was a testimony and Gratitude greeting from Krupavaram Lella, a student who graduated in February 2023 with the help of the Korean Women's Gospel Volunteer Group. And six foreign students who are currently being sponsored participated together to express their gratitude.

Krupavaram Lella's testimony, who graduated in February 2023

Hello, everyone. It's good to meet all the Korean female gospel volunteers.

I had a great blessing while I was attending Asin University, and I am grateful to see you all. Thanks to your support and prayers, I was able to meet great professors to study and finish my studies in February this year. Thanks to your support, I was able to concentrate on studying for my doctorate.

I was born into an Indian Christian Southern family. My family has been believing in Jesus for two generations. God gave me the dream of a dedicated minister through my parents. I almost became a speechless disabled person. Because when I was young, I had a problem with my voice and I couldn't speak. But thankfully, I'm able to speak in front of everyone right now. Through miracles, I learned that the Lord had guided me to life.

Although I was born with a faith, I was not entirely devoted to God. I wanted to go the way I wanted to go on my own, and I wanted to partially go into the path of a minister.

I had a big accident in 2007. When I was almost dead, God saved me. I knew that I had a special wish by escaping from the crisis of death. I received a calling through Philip's 1:21 saying, "This is Christ to live with me, and it is also beneficial to die." Thinking of Jesus who died for us on the cross, I came to hope that I would be used as the Lord's servant. I started studying theology in 2009.

And I got married before I came to Korea in 2015. My wife Aldo Sheba Lella is also in her PhD thesis. My wife and I are praying for the expansion of the kingdom of God in India. I'm going to India with my wife to create a missionary organization. I want to build a mission center and raise my disciples there to train the ministers of God's kingdom. Through the missionary association I established, I would like to teach and cultivate local pastors and saints. In addition, we would like to establish a Bible school that encourages missionary work and a mission center that serves as missionary training. Disciple training, evangelism, and worship are part of this ministry.

Also, we started the Cross Bears Youth Group to set a good example in society, with Christian youth uniting and preparing Christian youth on their spiritual journey. And we want to play a role in reaching out to non-Christian youth through various social activities and missionary events.

Indian Christianity desperately needs sound biblical teachings. I will also engage in literary ministry through God's providence and guidance. Currently, I work on writing a variety of theological and dedicated books for publishing in English, Telugu and Kannada. Through document missionary work, we will help readers better understand God, Jesus, the church, and its mission.

But it's not going to happen easily, and I think there will be many challenges. Nevertheless, I believe that God will be a guide and light up the way. I think God trained me for these things.

I'd like to thank you for helping me when I'm in need. A thank you is not enough and nothing can pay you back. Especially, I would like to thank God for coming to Asin University and giving me the opportunity to study with foreign students. May God bless you all and be the source of your blessings.

Bless you in the name of God.

* May 22, 2023. Korean Women's Gospel Volunteer Group Monthly Meeting Host: Chae Yang-sook, the head of the group

* Korea Women's Gospel Volunteer Group, Deaconess Park Moon-hee(Chairman) and President Chung Hong-yeol of Asin University.

ACTS UNIVERSITY

함께하는 학교법인이사 목회자 소개

- **이장호** 목사(이사장) 높은뜻광성교회
- **김은호** 목사(이사) 오륜교회
- **박장혁** 목사(이사) 드림교회
- **이재훈** 목사(이사) 온누리교회
- **정기수** 목사(이사) 수동교회
- **황성은** 목사(이사) 창동염광교회
- **김경진** 목사(이사) 소망교회
- **김형국** 목사(이사) 나들목네트워크
- **이인호** 목사(이사) 더사랑의교회
- **임채영** 목사(이사) 서부교회
- **최성은** 목사(이사) 지구촌교회
- **최원준** 목사(이사) 안양제일교회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 안내

대학교

- 모집 학과
  - 신학과
  - 기독교교육과 미디어학과
  - 기독교상담학과
  - 사회복지선교학과
- 문의 031-770-7701~2

아신대학교 입학안내

대학원

- 모집 대학원
  - 일반대학원
  - 선교대학원
  - 신학대학원
  - 교육대학원
  - 상담대학원
  - 다문화교육복지대학원
- 문의 031-770-7794~6

아신대학교 대학원 입학안내

ACTS ACTS UNIVERSITY 아신대학교

12508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경강로 1276
TEL 031-770-7700 FAX 031-772-5479